

# 리스(Jean Rhys)의 후기단편소설 「선구자, 오 선구자여」와 「수상한 상황」 : ‘위치지울 수 없는’ 이방인의 존재를 통해 드러나는 제국 시민의 내면\*

오 은 영

## 차 례

- I. 들어가며
- II. 식민지 백인사회의 맹목과 ‘위치지울 수 없는’ 이방인 — 「선구자」
- III. 탐정소설의 서사와 식민지 백인사회의 이중성 - 「수상한 상황」
- IV. 나가며

## I. 들어가며

주체가 타자와 소통한다는 의미가 타자의 이질성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면, 리스(Jean Rhys)의 후기 단편소설에는 주체가 타자와의 소통을 끊고 고립되는 식민지 백인사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려진다. 식민지 사회의 백인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내면화하지 않은 돌연변이 같은 백인들을 고립시키고 추방시키지만,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들 자신의 고립과 타락이다. 식민지와 제국 사이에서 흔히 나타나는 인종간의 위계는 백인과 유색인 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그런데 리스 생전에 마지막으로 출판된 단편소설집 『잠을 청해 보세요, 부인』 (*Sleep It Off Lady*, 1976)의 두 단

\* 이 연구는 2014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편 소설 「선구자, 오 선구자여」(“Pioneers, Oh, Pioneers”)와 「수상한 상황」(“Fishy Waters”)에서 드러나는 갈등과 반목은 백인들 내부에서의 반목과 추방, 처벌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영국 본토가 아니라 모든 백인들이 단결해야 하는 불안한 식민지 생활에서 왜 이런 갈등과 반목이 나타나는가. 이러한 갈등은 당시 제국을 경영해야 했던 영국이 식민지 경영을 통해 제국 시민의 삶과 영혼을 어떤 상태로 몰아가고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리스의 두 단편소설은 백인 주체와 유색인 타자 사이의 관계를 다루지 않고 식민지 백인사회를 집중적으로 해부한다는 점에서 좀 더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형적인 인종갈등을 배제시키고 백인들 사이의 관계에 집중함으로써 두 단편소설은 주체와 타자의 관계를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다. 바우만(Zygmunt Bauman)은 『모더니티와 양가성』(*Modernity and Ambivalence*, 1991)에서 모더니티의 성격을 한마디로 “나누고, 구분하고, 할당하는 힘”(the power to divide, classify and allocate, 15)이라고 말한다. 인간을 포함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각각의 범주에 맞게 분류되어 질서정연하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범주와 범주 사이의 경계에 모호하게 위치하여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바로 “양가성”(ambivalence)이다. 경계가 무너지게 되면 “그 결과는 망설임, 결정할 수 없음, 그리하여 통제력의 상실이라는 감정”(the outcome is the feeling of indecision, undecidability, and hence loss of control, 2)에 빠지게 된다. 양가성에 의한 행동의 결과는 예측 불가능하게 되고 통제 불가능의 상황에서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이 끼어들게 된다. 물론 주체가 타자 없이 존재할 수 없듯이, 모더니티는 항상 양가성이라는 잔존물의 방해 속에서 존재해왔다. 어쩔 수 없이 공존하기는 하지만 질서와 통제를 추구하는 모더니티의 성격상 양가성은 언제나 추방시키고 싶은 대상이다. 바우만이 양가성을 얘기하면서 예로 드는 것이 주체나 타자의 이분법으로 분류될 수 없는, 어느 쪽으로도 “위치지울 수 없는 이방인”(unplaceable stranger)의 개념이다.

이방인들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존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불길한 ‘제삼의 존재’이다. 이들은 진정한 잡종들이자 괴물들이다. 아직 분류

가 안 된 게 아니라 분류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들은 지금 여기 있는 하나의 대립물에 의문을 품는 게 아니라 대립의 원칙 자체에, 그 대립이 내포하는 이분법의 타당성과 대립이 요구하는 실행가능성 같은 것들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들은 구분이 갖는 취약한 인위적 성격을 폭로한다. 그들은 사회를 전복한다. 그들은 ‘어떻게 계속 해야할 지 모르겠다’는 일시적인 불편함을 최종적인 마비로 연결시킨다. 그들은 금기시되고 무장해제 되고 억압되고, 실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추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가 망할 것이다.

Some strangers are not, however, the *as-yet-undecided*: they are, in principle, *undecidables*. They are the premonition of that 'third element' which should not be. These are the true hybrids, the monsters - not just unclassified, but unclassifiable. They do not question just this one opposition here and now: they question oppositions as such, the very principle of the opposition, the plausibility of dichotomy it suggests and feasibility of separation it demands. They unmask the brittle artificiality of division. They destroy the world. They stretch the temporary inconvenience of 'not knowing how to go on' into a terminal paralysis. They must be tabooed, disarmed, suppressed, exiled physically or mentally - or the world may perish. (58-9)

바우만이 말하는 이방인은 백인이면서도 백인사회의 가치를 수용하지 않는, 리스의 두 단편소설의 주인공들인 라마지(Mr. Ramage)와 롱거(Jimmy Longa)를 설명하기에 적절해 보인다. 주체든 타자든 어느 쪽으로도 분류가 불가능한 이방인의 존재와 어느 쪽으로도 ‘위치지울 수 없는’ 이들의 위치는 리스 소설의 배경이 되는 1890년대 식민지 백인사회에서 그 자체로 위협적이다. 리스 소설에서 이방인의 존재가 중요한 이유는 그들을 추방한 사회의 편협함과 폐쇄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서인도제도는 사탕수수 재배를 위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수입

하던 지역이고 흑인노예와 백인 농장주 사이의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던 지역이었다. 특히 노예제 폐지가 선포되었던 1832년 직전인 1820년대와 30년대 초는 이 지역의 백인 농장주들과 영국의 노예해방론자들 사이에 노예제를 둘러싼 갈등과 충돌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었다. 노예제 폐지 이후에도 이 지역의 인종 갈등은 계속 불씨로 남아 폭동과 반목이 지속되었고 1880년대 이후에는 독일에서 생산되던 “사탕무 설탕”(beet sugar)이 유럽 전 지역에 유입되면서 서인도제도에서 생산되던 사탕수수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백인 농장주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옥스퍼드 대영제국사』(*The Oxford History of The British Empire*) 3권에 따르면, 노예 해방 이후부터 1900년 정도까지 서인도 제도의 전체 농장수가 이전의 3분의 1 정도로 대폭 감소했고, 주요 시장도 영국에서 미국으로 바뀌게 된다(490). 리스의 두 단편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노예해방이후에도 계속되던 사회혼란과 더불어 지속적인 경기 후퇴가 진행되던 1890년대이다.

「선구자」와 「수상한 상황」 모두 1890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한 것은 사소한 우연이 아니다. 그렉(Veronica Gregg)이 지적하듯이, 1930년대와 40년대에 집필되고 1960년대와 70년대에 출판된 리스의 후기 단편소설들에서 가장 눈에 띄는 주제 중의 하나는 “‘인종,’ 민족주의, 제국주의 사업과 관련하여 영국인의 주체성 형성”(the construction of the metropolitan subjectivity, in terms of “race,” nationalism, and the imperialist project, 162)과 관련된 것이었다.<sup>1)</sup> 리스의 후기 단편소설들 중에서 다수의 작품이 세기말과 20세기

1) 그렉은 1930년대와 40년대 사이에 쓰여지고 1960년대와 70년대에 출판된 단편소설들을 분석하면서 「선구자」를 포함시키지만 「수상한 상황」에 대한 분석이나 언급은 없다. 많은 후기 단편소설들이 1930년대나 40년대에 집필되었다는 것은 주로 리스의 편지들을 근거로 추정한 것인데, 「수상한 상황」의 집필시기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렉이 분석한 단편소설들의 출판날짜와 집필시기가 시간상 20-30년의 차이가 나는 것은 리스가 『자정이어, 안녕』(*Good Morning, Midnight*)을 1939년에 출판한 이후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이다. 이후 사람들은 리스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1947년 디아즈(Selma Vaz Dias)라는 여성이 『자정이어, 안녕』을 연극대본으로 각색하기 위해 저자의 허락을 구하는 과정에서 리스가 다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1957년 디아즈의 각색은 BBC 라디오에 방송이 되었고, 1966년 『드넓은 사가소 바다』(*Wide Sargasso Sea*)를 출판한 이후 리스는 작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게 된다. 그녀의 후기 단편소설들은 리스가 작가로서의 명성을 쌓은 이후에 출판되었다.

초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은 이때가 제국시민의 주체성 형성이 가장 의식적으로 강조되었던 시기였다는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sup>2)</sup> 그 책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대영제국의 힘을 찬양했던”(celebrated British imperial might, 162) 책들이 대량으로 출판되었음을 지적한다. 이 시기에 영국은 현실적으로는 제국이 쇠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제국의 이데올로기에 더 매달렸다고 할 수 있다. 「선구자」와 「수상한 상황」은 영국인들이 대영제국의 제국주의 사업에 박차를 가하던 1890년대 도미니카(Dominica)의 수도 로조(Roseau)에서 벌어진 사건들로 장소와 시대적 배경이 같을 뿐만 아니라 거의 연작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인물이 겹치기도 한다.<sup>3)</sup>

「선구자」의 라마지와 「수상한 상황」의 룡거는 영국에서 식민지인 도미니카로 흘러들어온 이방인들이다. 이들은 둘 다 영국인이지만 영국 주류사회의 가치인 자본주의와 식민주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백인사회 내부의 적(敵)이라고 할 수 있다. 리스의 두 소설은 이 ‘잡종 같은’ 혹은 ‘괴물 같은’ 이방인들에 대해 식민지 백인사회가 반응하는 다양한 양상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눈여겨 봐야 할 것이 두 단편 소설에서 서사의 중심이 라마지와 룡거가 아니라라는 점이다. 심지어 「수상한 상황」의 룡거는 하나의 인물로서 작품에 직접 등장하지도 않는다. 작가는 이 이방인을 둘러싼 백인들의 반응을 자세히 기록하며 주체와 타자의 관계, 그리고 그 두 범주의 어디에도 ‘위치지울 수 없

---

레이스킨(Judith L. Raiskin) 역시 리스가 27년간 출판시장에서의 침묵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언어를 발견하고 서인도제도를 배경으로 한 후기 소설들—『드넓은 사가소 바다』를 비롯하여—폭발적으로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1950년대와 60년대에 그녀가 썼던 소설들에서 식민지 주체들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107). 즉 리스는 인생의 후반을 영국에서 보냈지만 나이가 들수록 영국의 식민지였던 도미니카에서 보냈던 어린 시절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을 주로 썼다.

- 2) ‘제국시민’이란 표현은 대영제국의 시민으로 영국 ‘본토’에 살고 있던 영국인들과 식민지 경영을 위해 전 세계의 식민지로 이주한 영국인들을 모두 포함하지만, 리스 소설의 배경이 영국 본토가 아니라 식민지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주로 후자를 의미한다.
- 3) 아도인(Paul Ardoin)은 『잠을 청해 보세요, 부인』이 그저 단편소설들을 모아놓은 단편집이라기보다는 배치된 순서와 내용에 있어서 단편소설들 사이의 유기적 관련성을 살펴야 하는 단편소설연작(short story cycle, 246)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는’ 이방인의 존재를 통해 제국을 운영하는 제국시민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 본다. 본 논문은 리스가 이방인의 존재를 통해 세기말 식민지 백인사회의 맹목적 편견과 위선을 어떻게 서사적으로 형상화하는지 살펴 보려한다. 두 소설은 이방인인 라마지와 룡거가 주체와 타자의 대립관계 속에서 희생되어 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작가가 주체와 타자라는 대립관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지 보여준다. 이방인의 정체성을 사회적으로 심판하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식민지 영국인들의 실체는 제국주의라는 질곡 속에서 자신들의 영혼이 타락하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그들의 내면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작가가 식민지 백인들을 통해 영국 제국주의의 내부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보자.

## Ⅱ. 식민지 백인사회의 맹목과 ‘위치지울 수 없는’ 이방인 — 「선구자」

리스는 16살에 도미니카를 떠나 영국으로 건너온 이후 30대에 파리와 비엔나를 전전하면서 살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영국에서 보냈다. 그녀는 1979년에 8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영국에서 살았지만, 도미니카와 파리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었던 반면 영국적인 삶과 영국인들에 대해 일관되게 비판적이었다. 앵글로색슨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는 그녀의 후기 단편소설들의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 소설들 중의 하나로 1968년에 출판된 단편소설집 『호랑이가 더 낫다』 (*Tigers Are Better-Looking*)에 실린 「기계 바깥에서」 (*Outside the Machine*)는 이네즈(Inez Best)라는 젊은 여성이 프랑스의 베르샤유 근처에 영국식으로 운영되는 요양소에서 보내는 이야기이다. 간호사들이나 대부분의 환자들은 영국인들이고 이들의 모습은 대단히 부정적으로 묘사된다. 특히 그녀의 맞은편 침상에서 수다를 떠는, “둘 다 금발이며, 늘 깨끗하고 대단히 존경할만한”(both blonde, very clean and aggressively respectable, 86) 두 영국부인들을 보며 이네즈는 그녀들이 할법한 생각을 다음처럼 떠올린다.

이 무의미한 대화의 표면아래 이네즈를 바라보는 백인부인의 시선은 날카롭고 교활하며 심문하는 듯했다. 영국인이라고? 영국인, 어떤 종류의 영국인? 넌 일곱 번째 부서의 예순 아홉 번째 분과의 천 삼백 번째 세부분과에 속할까? (오직 하나만 허용된다고, 빌어먹을) 나는 안정되고 품위 있는 세계에 속하지. 만약 네가 자신의 정보를 밝히지 않거나 한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건너뛰어서 나를 혼란에 빠뜨린다면, 난 굉장히 불쾌할거고, 난 내가 무례하게 굴고 싶어질 때도 섬세하고 독창적인 힘을 발휘하지. 나를 무시하지 마. 난 기계를 움직여서 너 같은 많은 애들을 혼내왔으니까. 너 같은 많은 애들. . .

Under cover of this meaningless conversation the fair woman's stare at Inez was sharp, sly and inquisitive. 'An English person? English, what sort of English? To which of the seven divisions, sixty-nine subdivisions, and thousand-and-three subsubdivisions do you belong? (But only one sauce, damn you.) My world is a stable, decent world. If you withhold information, or if you confuse me by jumping from one category to another, I can be extremely disagreeable, and I am not without subtlety and inventive powers when I want to be disagreeable. Don't underrate me. I have set the machine in motion and crushed many like you. Many like you . . . ' (86)

요양소의 간호사들은 지시 받은 대로 기계처럼 움직이고, 이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는 화자는 기계 바깥에 존재하는 자신을 자의식적으로 바라본다. 자신이 기계 바깥에 존재하는 “쓸모없는”(useless) 인간임으로 언체라도 사람들이 큰 집계로 자신을 슈아내 버릴 거라는 상상을 한다. 하나의 기계 속에서 모든 부품이 세부구분으로 나뉘져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차지하듯이, 이네즈가 생각하는 가장 영국적인 특성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대상을 구분하고 “위치지우는”(placed) 것이다.

「기계 바깥에서」 이후 1976년에 출판된 『잠을 청해 보세요, 부인』에 실

린 「선구자」와 「수상한 상황」 역시 범주를 나누고 위치지우는 데 익숙한 영국인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두 소설은 “위치지우는” 데 익숙한 영국인들이, 더구나 구분과 경계가 더 선명해야 하는 식민지에서, “위치지울 수 없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추방하고 처벌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선구자」는 11살인 아이린(Irene)과 9살인 로잘리(Rosalie)의 목소리로 작품을 시작해서 로잘리가 죽은 라마지에게 편지를 쓰는 것으로 작품이 끝난다. 소설은 어린 소녀들의 목소리가 라마지의 이야기를 앞뒤로 감싸듯이 플롯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자매인 두 소녀들의 목소리가 똑같이 순수하고 어린아이다운 것은 아니다. 아도인(Paul Ardoin)이 지적하듯이, “주변적인 것들에 대단히 예민한 감성”(a sort of heightened sensitivity toward the marginal, 245)을 지닌 로잘리는 소설 내내 아이린을 포함한 다른 인물들과 대비된다. 「수상한 상황」의 문제적 인물인 롱거가 「선구자」의 서두에서 두 소녀들의 목소리를 통해 이미 언급되는 것도 흥미롭다. 멘지스 부인(Mrs. Menzies)이 직접 얼음을 사서 말을 타고 가는 장면을 보고 왜 하인에게 시키지 않고 그런 일을 직접 하는지 모르겠다며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고 비웃는 아이린에게 ‘창피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반문하는 로잘리의 대화를 보면 어린 소녀들이지만 아이린은 이미 백인사회의 가치기준을 내면화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너 정말’하며 아이린이 비웃었다. ‘넌 미친 사람들을 좋아하잖아. 넌 지미 롱거도 좋아했고 늙은 마만 멘지스도 좋아했지. 넌 더럽고 짐승 같고 끔찍한 라마지도 좋아했어.’

‘언니도 어제는 라마지 땀에 울었잖아’라고 로잘리가 대꾸했다.

‘어제 애긴 하지 마. 어제는 우리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엄마가 말하잖아.’

‘Oh, you,’ Irene jeered. ‘You like crazy people. You like Jimmy Longa and you like old maman Menzies. You liked Ramage, nasty beastly horrible Ramage.’

Rosalie said: ‘You cried about him yesterday.’

‘Yesterday doesn’t count. Mother says we were all hysterical yesterday.’ (11)



두 소녀의 대화에서 어제는 라마지의 장례식이 있었던 날로, “어제는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언급은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2년 전에 로조에 온 라마지는 백인신사이면서도 닥터 콕스를 제외하고 다른 백인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 클럽 생활도 하지 않는 비사교적인 인물이다. 모든 초대는 거절했어도 닥터 콕스를 좋아해서 그의 저녁초대에 응한 라마지는 당시 7살이던 로잘리의 요청으로 동요까지 부를 정도로 순진한 청년이기도 하다. 그는 도미니카에 집을 구입하고 싶는데 유일한 조건은 “작고, 가능한 외딴곳”(Small, and as remote as possible, 13)이면 좋겠다고 닥터콕스에게 말한다. 집을 사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의사에게 ‘평화’(peace)라고 답하는 라마지는 모든 측면에서 당시 백인 청년들과의 공통점을 찾기가 힘들다. 라마지가 식민지 백인사회에 던진 또 하나의 충격은 그가 유색인종의 여자와 비밀리에 결혼했다는 점이다. 그가 결혼한 여성은 유색인일 뿐만 아니라 “이슬라는 마을에서 매우 유명했다—실은 너무 유명했다”(Isla was very well known in the town—too well known, 15)라는 문장의 뉘앙스로 보아 그녀가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여자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 결혼을 계기로 “라마지 부부는 백인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된다. 닥터콕스를 제외한 모두에게서”(the Ramages were lost to white society. Lost to everyone but Dr. Cox, 15). 백인 지주이면서 백인사회와 전혀 어울리지 않고 백인사회의 가치도 내면화하지 못한 라마지는 바우만이 말하는 ‘이방인’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 백인 주체의 범주에도 그렇다고 유색인 타자의 범주에도 포섭되지 않는 그는 인종간의 경계를 흐린다는 점에서 유색인 타자보다 백인사회에 더 위험할 수 있다.

백인사회와의 직접적인 마찰은 이웃인 엘리엇씨 부부가 나체 상태로 나무에서 내려온 라마지와 만나는 사건에서 시작된다. 당황한 라마지가 자기도 모르게 엘리엇 부인의 옷차림을 보고 “참으로 불편한 옷이군. 게다가 추하기까지 하다니!”(What an uncomfortable dress—and how ugly!, 16)라고 말해버린 것이다. 나체로 돌아다녀도 좋을 더운 날씨에 영국에서처럼 옷을 차려입고 그것도 모자라 들뜬에 나와서까지 불을 피울 흑인소년을 대동해 차를 끊어 마시는 엘리엇 부부의 모습은 “자신은 결코 차를 마시지 않는다”(he never

drank tea, 16)는 나체 차림의 라마지와 너무나 대조적이다. 이 장면에서 묘사된 라마지의 외모는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는 로빈슨 크루소와 매우 흡사하다.

엘리어트 부부는 시선을 돌려 나무에서 내려오는 라마지를 보았다. 그는 완전 구릿빛으로 그을렸고,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내려왔으며, 수염은 가슴에 닿을 정도였다. 그는 샌들을 신고 가죽벨트를 매었는데, 한쪽으로는 단검을 차고, 다른 한쪽으로는 큰 주머니를 차고 있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

They looked up and saw Ramage coming out from the trees. He was burnt a deep brown, his hair fell to his shoulders, his beard to his chest. He was wearing sandals and a leather belt, on one side of which hung a cutlass, on the other a large pouch. Nothing else. (16)

물론 디포우(Daniel Defoe)의 소설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의 주인공은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화신이라 할 만한 인물이라서 리스 소설의 라마지와는 전혀 다른 인물이다. 라마지는 제국과 자본이 추구하는 가치로부터 오히려 도피하려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묘사된 라마지의 외모는 문명인이라기보다는 원시인에 가깝고, 실제 라마지가 추구하는 가치도 문명에서 가능한 멀어지는 것이다. 라마지의 모습은 콘래드(Joseph Conrad)의 『어둠의 심연』(*Heart of Darkness*)에 등장하는 커츠(Kurtz)가 아프리카의 자연 속에서 문명의 통제를 벗어나 원주민이 되어버린 경우와 유사하다. 토르코브닉(Marianna Torgovnick)은 『원시인이 되다』(*Gone Primitive*)에서 문명의 오지로 들어가 원주민처럼 되어버린 커츠를 분석하면서 타자에 대해 유럽인들이 갖고 있는 환상의 실체를 파헤친다.<sup>4)</sup> “커츠의 잘

4) 토르코브닉은 ‘원시인’(primitive)이라는 단어가 동물이나 인간의 ‘원조나 선조’의 의미로 15세기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했고, 18세기 말부터는 비유럽권의 원주민(natives)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말한다(18-9). 동시에 ‘원시인’이라는 단어는 ‘오리엔탈’(oriental)이라는 단어의 사용과 유사하게 실체가 있는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유럽인들이 타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설명한다.

못은, 말로우의 생각으로는 모든 것에 필요한 ‘절제’의 고리를 끊고, (유럽인들이 타자에 대해 갖고 있던 환상을 명확한 사실로 만드는데 있어서 단지 너무 멀리 나아갔다는 것이다)(Kurtz's mistake has been only going too far in making the fantasy a lived fact, loosening the 'restraint' Marlow finds necessary in all things, 146). 사실 유럽인이 문명의 오지에서 원주민에 동화되는 현상은 식민지를 개척하고 운영해야 하는 백인들에게는 가장 큰 공포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위협은 원주민에 동화된 백인이 유색인 여성과 관계하여 혼종결혼(miscegenation)을 하는 것이다. 라마지는 백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두 가지를 스스로 없애 행한다. 백인들의 눈에 라마지는 문명과 원시, 백인과 흑인의 두 세계 사이에서 그 어느 쪽에도 속할 수 없는 상태로 길을 잃어버린 존재이다.

라마지를 둘러싼 갖가지 소문과 억측은 얼마동안 보이지 않는 라마지 부인이 살해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으로 번지며 “가제트”(Gazette)라는 유명신문에 기사화된다. 라마지는 백인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할 인물임으로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백인사회는 심지어 인종갈등이라는 카드를 사용한다. 이 대목은 소설에서 라마지가 백인과 흑인사회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존재이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제거되어야 하는 대상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흑인들은 너무 많은 것을 참아왔다. 이제는 그들이 짐승처럼 살해당해도 참아야하고 그에 대해 아무런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Black people bear much; must they also bear beastly murder and nothing done about it?, 19)라는 신문문의 마지막 문장은 이 사회가 더 이상 라마지를 백인으로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한 무리의 흑인들이 라마지의 집을 공격하기 위해 찾아간 날 밤 흰 옷 차림의 라마지가 “백인 좀비”(white zombi, 20)처럼 보였다는 흑인들의 진술은 라마지가 이미 백인도 흑인도 아닌 ‘괴물 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오토(Melanie Otto)는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좀비’ 설화가 서인도제도에서는 노예로 잡혀온 아프리카인들에 의해 인간이지만 인간으로 살 수 없는 노예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고 설명한다(153-54). 즉 서인도 제도에서 유통되는 좀비의 의미는 제국주의의 운영과 필수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인도제도의 노예제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백인인 라마지가 좀

비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흑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괴물’이 되었다는 의미이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서성거리는”(linger in a liminal zone between life and death, Otto 158) 좀비로 불렸다는 것은 곧 다가올 그의 죽음을 암시한다.

날이 밝아 경찰과 닥터 콕스가 찾아갔을 때 라마지는 이미 사망한지 몇 시간이 지났다고 화자는 보고한다. 아도인(241)과 오토(157)는 라마지의 죽음을 자살로 명시하지만, 그의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다. 소설의 화자는 라마지가 죽기 전날 밤 폭도들의 공격을 받았던 부분을 특히 모호하게 얼버무린다. 돌을 던지며 그의 집을 공격했던 폭동에 대해 사람들마다 하는 얘기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다. 심지어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묘사 없이, “그가 죽은 지 몇 시간이 지났다”(He had been dead for some hours, 20)라는 언급만으로는 그의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민망한 해프닝으로 끝났을만한 일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은 이미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없다. 그의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화자가 들려주는 어느 백인 부인의 말은 이 식민지 백인사회가 상식이나 관용이 전혀 용납되지 않는 사회임을 증언한다. “그의 죽음은 정말이지 뜻밖의 축복이야”라고 어느 부인이 말했다. 그는 분명 제정신이 아니었어, 불쌍한 사람 같으니—옷을 훌랑 벗고 일광욕을 하다니—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어”(‘His death was really a blessing in disguise,’ said one lady. ‘He was evidently mad, poor man—sitting in the sun with no clothes on—much worse might have happened,’ 21)

소설 속의 식민지 사회는 엘리엇 부부처럼 영국의 삶을 그대로 고수하는 대부분의 백인들과 이러한 가치를 거부하는 라마지 같은 이방인과 그 중간에 양심적인 지식인으로서 어느 정도 자신의 소신을 갖고 살아가려는 닥터 콕스로 나눌 수 있다. 세이보리(Elaine Savory)는 도미니카에서 하나의 전설처럼 전해지던 라마지의 이야기를 소설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리스가 다양한 관점들을 동원하고 있음을 지적한다(165). 그런데 다양한 관점이라는 세이보리의 지적이 무색할 만큼 백인들의 목소리는 충분히 다양하지가 않다. 라마지의 기

이한 행동들은 주로 하숙집을 운영하는 미스 램튼과 콕스부인과 콕스를 통해 독자에게 전해진다. 라마지가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었던 인물이 닥터 콕스라고 본다면 이 백인사회가 얼마나 동질적인 사회인지 추측할 수 있다. 사실 콕스조차도 끝까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부류의 인물은 아니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설의 제목처럼 이질적인 목소리를 내는 라마지가 '선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라마지의 이야기를 앞뒤로 감싸고 있는 로잘리의 목소리와 관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975년에 윈담(Francis Wyndham)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리스가 “특히 관점과 관련하여 이 소설을 쓰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difficult to write, especially with regard to point of view, Savory 165에서 재인용)고 언급한 것은 라마지를 '선구자'로 만들 수 있는, 이질성을 수용할 수 있는 인물을 이 백인 사회에서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식민지 백인사회의 맹목과 편협함은 로잘리의 목소리를 앞뒤에 배치함으로써 더욱 강조된다. 이 식민지 백인사회에서 거의 유일하게 라마지를 편견과 오해 없이 이해하는 유일한 인물이 로잘리이며, 따라서 라마지에 대해 이 백인사회와는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로잘리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소설을 앞뒤로 감싸고 있는 로잘리의 목소리와 관점이 없이는 이방인으로서 라마지의 존재 의미가 선구자로 자리매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단편소설의 제목인 「선구자, 오 선구자여」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소설의 첫 장면에 두 소녀의 이야기 속에 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된다. 한 사람은 이 단편소설의 주인공인 라마지이고 두 번째 인물은 「수상한 상황」의 주인공인 룡거이고 나머지 한 사람인 벤지스는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는 인물이다. 그러나 라마지와 룡거의 경우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이들은 식민지 백인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살다가 추방당한 인물들이다. 작가는 이 이방인들을 '선구자'로 명명한다. 이방인이란 기존사회의 규칙과 질서에 위협적일 수도 있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그 기존사회가 배제시켜왔던 가치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하나의 범주에만 속할 것을 강요하는 식민지 백인사회의 근본적인 한계를 폭로하는 것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다. 소설의 마지막은 로잘리가 “모든

영혼을 위한 날”(All Souls Day, 21) 밤에 불쌍한 라마지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다 잠이 드는 장면으로 끝난다.

잠자러 가기 전 침실 창가에 멈춰서면서 ‘오늘은 모든 영혼을 위한 날이구나’라고 로잘리는 생각했다. 그녀는 라마지가 햇볕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하루 종일 촛불이 켜져 있는 카톨릭 묘지에 묻힐 수 있기를 바랐다. 밤이 되면 그 촛불들은 반딧불처럼 반짝거렸다. 묘지들은 꽃들로 뒤덮여 있다. 어떤 꽃은 진짜 꽃이고 어떤 꽃들은 붉은 색이나 노란색 종이나 금박을 오려서 만든 꽃들이었다. 때로는 편지가 돌맹이 아래 놓여 있기도 했는데, 흑인들은 다음날 아침 편지들이 없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 어디로 갔단 말이야? 누가 장례식날 밤에 편지를 훔치기라도 했던 말인가? 그러나 어쨌든 편지들이 사라졌다.

‘This is All Souls Day,’ Rosalie thought, standing at her bedroom window before going to sleep. She was wishing that Mr Ramage could have been buried in the Catholic cemetery, where all day the candles burnt almost invisible in the sunlight. When night came they twinkled like fireflies. The graves were covered with flowers – some real, some red or yellow paper or little gold cut-outs. Sometimes there was a letter weighted by a stone and the black people said that next morning the letters had gone. And where? Who would steal letters on the night of the dead? But the letters had gone. (21)

로잘리의 바램과는 달리 라마지는 성공회 교회 묘지에 묻힌다. “신교도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었다라고 믿었다”(Protestants believed that when you were dead, you were dead, 21)는 로잘리의 생각은 카톨릭과 영국 국교회에 대한 리스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핑커튼(Steve Pinkerton)이 지적하듯이, 리스는 영국 국교회의 억압적이고 기계적인 성향을 영국제국주의와 동일시하면서 오랫동안 서인도제도에서 뿌리를 내린 카톨릭에 대해서는 전통 문화인 오베아와 함께 긍정적으로 묘사한다(93-4). 위의 인용문에서 카톨릭

묘지는 밤과 낮, 죽음과 삶의 경계에 연연하지 않는 따뜻함으로 묘사되어 있다. 식민지 백인사회가 보여주는 구획과 획일화와는 정반대의 분위기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콕스부인이 로잘리가 쓰다만 편지를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자 구겨진 편지가 “정확히 어디로 가야할 지 아는 듯이 길을 따라 통통거리며 내려갔다”(bouncing purposefully down the street. As if it knew exactly where it was going, 22)는 마지막 문장은 고딕소설의 분위기를 연상시킨다. 소설의 결말은 로잘리의 목소리를 통해 신비와 미신의 기호들을 불러냄으로써 제국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기계처럼 정확히 위치 지우려 하는 사회가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 Ⅲ. 탐정소설의 서사와 식민지 백인사회의 이중성 - 「수상한 상황」

피해자가 살해당하거나 전문적인 탐정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수상한 상황」은 독자에게 범죄의 장면을 재구성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탐정소설의 서사에 기반을 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탐정의 역할은 화자와 독자에게 맡겨진다. 리스가 자신의 후기 소설에서 탐정소설의 서사를 이용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이 소설은 작가가 죽기직전 마지막으로 발표한 단편소설집에 포함되어 있어서 1970년대에 집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소설의 배경은 세기말인 1890년대로 되어있다. 영국에서 도일(Arthur Conan Doyle)의 탐정소설 설록 홈즈(Sherlock Homes) 시리즈가 대중적인 인기를 얻어가던 시점이 1890년대 말이었지만 이 소설이 쓰여진 시대로부터 80년 정도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리스가 탐정소설의 서사를 이용한 것이 설록 홈즈의 영향 때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탐정소설에 대한 대중적 인기가 한풀 꺾인 1970년대에 리스가 이 서사를 이용한 것은 오히려 소설의 주제인 인간의 이중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장르라는 판단 때문이 아니었을까. 19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탐정소설의 기원이 “영혼의 어두운 면에 대한 후기 낭만주의적 관심”(a late romantic preoccupation with the

nightside of the soul, Porter 25)과 관련이 있다는 언급은 「수상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진짜 범인에 대한 독자의 느낌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탐정 소설의 서사가 “사건조사라는 ‘드러난’ 이야기”(‘open’ story of investigation)와 “범죄의 ‘숨겨진’ 이야기”(‘hidden’ story of the crime, Porter 29)가 중첩적으로 엮인다는 점에서 서사의 이중성이 범인의 이중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소설은 1890년대 도미니카에 살고 있는 백인들이 “도미니카 헤럴드”(The Dominica Herald)라는 신문에 아동학대죄로 체포된 롱거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개진한 편지들을 소개하면서 시작한다. 편지들은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했던 백인 농장주의 입장을 대변하듯이 노예무역이 아프리카 추장들의 도움이 없이는 유지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인종차별적인 주장부터, 롱거가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선량한 영국의 노동자를 “희생양”(a scape-goat, 46)으로 만든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익명의 편지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다양한 편지들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실린 매기(Maggie Penrice)의 편지는 앞으로 전개될 롱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매트 펜리스(Matt Penrice)의 부인이 자신의 친구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앞의 다른 편지들보다 비중 있게 읽힌다. 매기는 매트에게 사건에 휘말리지 말라고 충고하지만, 그는 롱거가 흑인이 아니라 백인인데 무슨 걱정이냐고 매기의 걱정을 일축한다. 그러나 그녀는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단언컨대, 지미 롱거는 이 일이 끝나기도 전에 명예로운 흑인이 될 거야. 두고 봐.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렇게 만들테니”(I say 'Jimmy Longa will be an honorary black before this is over, you'll see. They'll twist it somehow, 48)라며 정확하게 앞으로 전개될 일을 예측한다. 이 소설의 묘미는 매기가 자신의 남편이 이런 일을 주도한 인물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건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낸다는 것에 있다.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는 가장 무지한 매기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예리한 눈을 갖고 있다. 매기가 보이는 맹목과 통찰 사이의 역설과 아이러니가 소설의 서사를 더욱 긴장감 있게 끌고 간다.

「수상한 상황」의 서사는 식민지 백인사회에서 요구하는 가치기준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이 어떻게 고립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이방인을 둘러



싼 백인들의 움직임이 더 집중적으로 따라간다. 룡거는 하나의 인물로서 소설에 등장하지 않고 매기의 편지 속에서나 재판장에서 변호사가 대신 읽는 룡거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만 등장한다. 그는 사건의 주인공이지만 소설의 서사에서 그는 여러 다양한 입장 중의 하나일 뿐이다. 램찬드(Kenneth Ramchand)가 리스의 단편소설 중에서도 서인도제도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만 묶어서 출판한 소설집의 서론에서 “서사의 절묘함”(a tour de force of narration, 5)을 지적할 만큼 「수상한 상황」은 다양한 장르의 글들이 뒤섞여 있다. 신문기사, 사적인 편지, 판사의 판결, 변호사의 변론 등을 통해 당시의 사회적 관심사가 어떻게 하나의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지 잘 보여준다. 식민지 백인사회에도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백인들 사이에 계급이나 정치적 관점에 따라 다양한 입장 차이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소설에서 다양하게 제시된 사적, 공적인 기록들이다. 소설은 세기말의 식민지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종, 계급, 젠더에 따른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작가는 갈등의 파장을 백인사회 내부로 한정함으로써 인종적 타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백인사회 내부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국의 노동계급에 속하지만, 떠돌이 목수인 룡거는 미국으로 가기 전에 돈을 좀 벌어보겠다고 도미니카로 흘러 들어온 엉뚱한 인물이다. 식민지 백인 사회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은 그가 어디에서든 주저 없이 사회주의자임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펜리스 부인이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 룡거에 대한 다음과 같은 언급이 나온다. “룡거는 자신이 사회주의자라고 떠들고 다녔어. 새로운 세상은 과거의 재위에 세워져야한다는 식으로 극단적인 말들을 하면서. 그가 술집이든 어디든 거품을 물면서 떠들고 다녔으니, 백인들이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 있겠지”(He gave out that he was a socialist, extreme – the new world must be built on the ashes of the old, that sort of thing. He preached fire and slaughter in the rum-shop and everywhere else so you can imagine he wasn't very popular with the white people, 48). 룡거는 목수라는 백인노동계급의 인물이고 당시의 지배적 가치에 반하는 사회주의자라는 점에서, 「선구자」의 라마지보다 더 위험한, 백인 내부의 타자이자 이방인인 셈이다. 소설에서 룡거가 체포된 것에 격분한 익명의 투

고자에 따르면, 롱거는 1년 전에 도미니카에 도착했고 미스 램튼의 하숙집에서 하루 만에 쫓겨나 거처를 찾지 못하고 흑인 거주 지역에 정착하게 된다. 그가 사회주의자라는 사실이 백인들에겐 못마땅한데다 그가 흑인 거주 지역에 정착했다는 것은 백인과 유색인 사이의 경계를 무시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롱거는 정치적 급진주의자로서 계급의 경계를 전복하려할 뿐만 아니라 인종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위험인물이다. “그들이 늘 그렇듯이 위선적인 태도로 그를 무시하는 척했지만 사실 그들은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with their usual hypocrisy they pretended to ignore him, but they were merely bidding their time, 45)는 첫 번째 편지의 익명의 투고자의 말은 사건을 추적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된다. 롱거 사건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백인들이 롱거를 추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다는 사실이 편지에서 암시된다.

롱거는 로조의 거리마다 우글거리는 집 없는 아이 하나와 거친 농담을 주고받는 것이 목격되었는데, 이 때문에, 세상에, 아동성추행과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다. 언뜻 보기에도 날조된 죄목이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이 오래된 골칫거리를 쫓아내고 자신들의 공평 무사한 정의를 자랑할 수 있도록 모의를 계속해왔다.

He[Mr. Longa] was found joking roughly with one of the many vagabond children who infest the streets of Roseau, and is to be accused of child-molesting and cruelty, if you please. A trumped-up charge, on the face of it. In this way, they plan to be rid of a long-standing nuisance and to be able to boast about their even-handed justice. (45)

사건은 롱거가 고아나 다름없는 길거리의 흑인소녀를 자신의 작업대위에 눕혀놓고 톱으로 두 동강 내겠다고 위협했다는 내용이다. 흑인소녀를 위협할 때 롱거가 했던 “자 이제 영국의 극장에서 사람들이 하듯이, 내가 너를 두 동강 내야겠어.”(Now I'm going to saw you in two, like they do in English music halls, 50)라는 말에 대해 켈리스 씨는 그것이 말장난이 아니었다고 증언한

다.<sup>5)</sup> 룡거의 입장은 자신이 어울릴 사람도 없이 외로운 생활에 지쳐 술을 마신 상태였고, 자신의 주위를 맴돌며 성가시게 하는 흑인 아이들을 겁줄 의도에서 장난삼아 그러려던 것인데, 이 장면을 펜리스 씨가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펜리스 씨는 온 몸에 시퍼렇게 멍까지 들고 겁에 질린 흑인소녀를 오랫동안 자신의 집에서 일하다 은퇴한 조셉 부인(Madame Joseph)에게 맡긴다. 닥터 트레버(Dr. Trevor)는 소녀를 치료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려고 시도하지만 겁에 질린 소녀는 “입을 꼭 다물고 있다”(clam up, 55). 의사는 이러한 현상이 트라우마를 겪는 환자들 사이에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판사는 소녀가 말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혹시 누군가에 의해 협박을 받아서가 아닌지 묻는다.

이 단편소설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 중의 하나는 남편이 주도한 범죄를 소설의 맨 마지막에서 부인이 알아차리게 만드는 구성이다. 범죄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증인이 사실은 사건의 범인이고, 이러한 사실을 오직 (독자와) 부인만이 알아차린다. 소설의 처음부터 암시되는 여러 가지 실마리들을 통해,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독자들은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추측할 수 있게 되지만 공식적으로 범인이 누구이고 그가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보통의 탐정 소설이 범죄의 진상을 드러냄으로써 법과 질서의 회복을 암시하며 끝난다면, 리스 소설에서는 범죄의 진상이 낱알이 밝혀지지 못하고 파묻히게 될 것이라는 암시로 끝난다. 그 사회의 규범과 가치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남편의 실체를 부인이 눈치 채게 되었다는 암시는 결코 무시하고 넘어갈 작은 사건이 아니다. 사회를 이루는 최소단위가 부부이고 가족인데, 이 관계에서 균열이 나타난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빅토리아조 말기에 해당하는 1890년대 식민지에 살고 있는 매트와 매기는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이상적인 부부처럼 보이지만, 각자의 내면에서는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 매트는 매기에게 사건에 대한 진상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매기는 소설의 마지막

5)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따르면, 뮤직홀은 1850년대 경부터 영화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한 1차 세계대전 직후까지 영국에서 유행했던 일종의 극장이다. 코미디, 노래, 춤, 서커스 등 다양한 장르가 혼합되어 관객에게 오락을 제공했다. ‘몸을 두 동강내겠다’는 룡거의 말은 당시 극장에서 마술사가 무대장치나 도구를 이용해서 여성의 몸을 둘로 나눈 듯이 보이게 하는 마술쇼를 흥해낸 것으로 보인다.

막에 가서야 매트가 자신이 모르는 많은 비밀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소설의 구성은 크게 ‘도미니카 헤럴드’에 소개된 편지들과 롱거의 사건에 대한 재판 장면, 그리고 재판이 끝난 후 펜리스 씨와 그의 부인이 나눈 대화로 이루어진다. 롱거의 입장과 펜리스 씨의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마지막 펜리스 부부의 대화는 소설의 압권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탐정 소설이 결말부분에 와서야 여러 가지 위증과 거짓 실마리들이 차츰 밝혀지면서 진짜 범인이 드러나고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듯이, 소설의 화자인 펜리스 부인과 독자는 소설의 마지막에서야 진짜 범인의 실체와 마주치게 된다.

펜리스 씨는 대답대신 미소를 지으며 ‘그럼 이 문제는 해결되었군’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기 부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고는 안락의자로 가서 책을 한 권 집어 들었다. 그러나 매기는 남편을 걱정스러운 듯이, 조심스럽게, 바라보다가 그가 책장을 전혀 넘기지 않는 것을 알아챘다. 갑자기 그녀는 눈을 찡그리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녀는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이 남자가 완전한 이방인이라는 엄청난 확신을 뿌리치기위해 애쓰고 있었다.

He[Mr. Penrice] didn't answer but smiled and said: 'Then that's settled.' He patted her shoulder lightly, then he went over to an armchair, took up a book; but Maggie, watching him anxiously, cautiously, saw that he never turned a page. Suddenly she screwed up her eyes tightly and shook her head. She was trying to fight the overwhelming certainty that the man she was looking at was a complete stranger. (62)

펜리스 씨가 진짜 범인이라면 롱거가 겁을 준 흑인 소녀는 이미 사건의 희생자가 되기 위해 심한 폭행과 협박을 거쳐 롱거 앞에 세워진 것이며, 사건 후에 소녀를 맡아 돌본 조셉부인이 은퇴할 당시 펜리스 씨가 그녀의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는 사실은 사건 후의 모든 통체가 가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 이후 펜리스 씨에 의해 피해자인 소녀가 성급히 세인트 루시아(St. Lucia)로 보내졌다는 것과 거기서 소녀를 보호하고 있는 여성에게 큰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 역시 언급된다.

소설의 결말에서 서사의 초점이 ‘위치지울 수 없는’ 이방인인 룡거에서 사회의 극단적인 보수층을 대표하는 펜리스 씨에게로 옮겨감으로써, 룡거와 펜리스 씨와의 관계가 소설 전체를 다시 한 번 아이러니하게 만든다. 갑자기 낮설어 보이는 남편의 존재는 부인의 눈에 “완전한 이방인”이 된다. 그러나 똑같이 이방인으로 호명되지만 펜리스 씨와 룡거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룡거는 사회주의자로서 현재의 사회체제의 전복을 얘기하는 위험인물이자 식민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종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문제적 인물로서 어느 하나의 범주에 산뜻하게 포섭될 수 없는 이방인이다. 반면 소설의 마지막에서 부인의 눈에 갑자기 낮설게 보이는 남편은 속과 겉이 다른, 이중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질성을 포함한 이방인의 의미와는 다르다. 이질성이란 정체된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위협하지만 동시에 그 정체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치를 지닌다. 펜리스 씨의 경우는 이러한 의미의 이질성과는 거리가 먼, 위선에 가까운 이중성을 지닌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Dr. Jekyll and Mr. Hyde)처럼 분열적인 인물인 펜리스 씨가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존재이기는 하나 정체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인물은 아닌 것이다. 펜리스 씨의 정체가 드러난 이유는 룡거처럼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인물을 제거하여 사회의 기존 틀을 유지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수상한 상황」은 소설의 서사와 주제 모두 이중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건조사라는 ‘드러난’ 이야기와 범죄의 ‘숨겨진’ 이야기라는 서사의 이중성이, 표면적으로는 점잖은 영국신사이지만 내적으로는 어떤 잔인한 일도 벌일 수 있는 펜리스 씨의 이중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펜리스 씨와 그가 속한 백인 사회와의 관계도 이중적이다. 룡거를 추방하고 싶은 심리와 펜리스 씨가 실행에 옮긴 비인간적인 사건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공존한다. 사건을 꿰뚫어 볼 줄 아는 매기의 통찰력은 자신의 남편에 대한 무지로 인해 역시 이중적이다. 이러한 이중성들은 소설의 서두에 소개된 다양한 입장의 편지들처럼 한 사회의 흐름이 일방적으로 하나의 입장으로 정리될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선구자」에서 소설의 주요 내용을 로잘리의 관점과 목소리로 감싸고 있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 이 식민지 백인사회가 매우 맹목적이고 편협하지만

그에 포섭되지 않는 어떤 요소가 여전히 존재함을 드러낸다. 소설의 말미에 매기의 목소리를 통해 펜리스 씨가 이 식민지 사회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가 반복된다. 이는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펜리스 씨의 관점에서 보기에 이 사회가 동일성의 원리가 지배하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사회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마지를 죽음으로 몰아갈 정도로 맹목적이기도 하지만, 통거가 똑같은 운명에 처해지지 않도록 통거를 변호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이 사회에서 두 이방인 모두 수용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식민지 백인사회가 드러내는 한계이면서, 동시에 타자와 이방인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사회의 성숙과 변화가능성의 척도임을 보여준다.

#### IV. 나가며

바우만이 제기하고 있는 ‘이방인’의 개념은 「환대, 정의, 그리고 책임」(Hospitality, Justice, And Responsibility)이라는 제목의 대담에서 데리다(Jacques Derrida)가 말하는 “결정할 수 없음”(undecidability)과 매우 유사해 보인다. 이때 그가 말하는 “결정할 수 없음”은 결정을 아예 내리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어렵다는 의미이다. “결정할 수 없음이 결정과 정반대의 의미는 절대 아니고, 오히려 나는 어떤 상태로든 결정할 수 없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단어의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윤리나 정치에서 어떠한 결정이나 책임도 얘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싶다”(Far from opposing undecidability to decision, I would argue that there would be no decision, in the strong sense of the word, in ethics, in politics, no decision, and thus no responsibility, without the experience of some undecidability, 66). 데리다가 강조하는 바는, 인간사회에서 윤리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신의 계시를 받고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할 지 고민했을 때 그가 느꼈을 공포와 떨림을 수반할 정도의, 결정을 내리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를 거쳐야만 비로소 결정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정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매우 끔찍한 일임으로 쉽게 내린 결정은 결정이 아니라 매뉴얼의 기계적인 적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계를 나누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모더니티의 속성은 인간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 물질적 해방을 이루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속성일 것이다. 그러나 주체가 타자라는 기반을 바탕으로 존재하듯이, 경계를 나누는 일은 폭력과 배제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마련이다. 데리다가 말하는 환대와 정의는 모더니티가 수반할 수밖에 없는 폭력과 맹목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말하는 ‘결정할 수 없음’의 고뇌도 인간사회의 윤리나 정치가 기계적 매뉴얼의 적용을 통해서는 절대로 타자에 대한 환대나 정의를 구현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주체와 타자의 대립관계에 대한 바우만의 문제제기 역시 인간을 하나의 범주에 기계적으로 위치시키려는 모더니티의 속성에 대한 비판이다. 이러한 철학자들의 논의는 리스가 라마지와 롱거사건을 통해 비판하는 영국 제국주의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리스가 「선구자」와 「수상한 상황」을 통해 보여준 식민지 백인사회는 모더니티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제국주의가 결국 다다르게 되는 최종적인 현실의 모습이다. 리스는 이 두 편의 단편소설에서 19세기 말 식민지 백인사회가 얼마나 자신들의 맹목과 편견 속에서 마비되어 가고 있었던가를 생생히 묘사한다. 이러한 문명사회의 마비된 모습은 ‘위치지울 수 없는’ 이방인이 갖는 이질성이나 윤리적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고뇌와 방황을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배제시켰던 산업문명이 지닌 치명적 결함이기도 하다. 리스의 두 소설은 경계와 경계사이의 모호함에 대한 인식과 관용 없이는 경계를 나누는 일의 폭력성과 맹목을 멈출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 인 용 문 헌

- Ardoin, Paul. "The Un-happy Short Story Cycle: Jean Rhys's *Sleep It Off, Lady*." Wilson & Johnson. 213-32.
- Attridge, Derek. "Innovation, Literature, Ethics: Relating to the Other." *PMLA* 114 (Jan., 1999): 20-31.
- Bauman, Zygmunt. *Modernity and Ambivalence*. Oxford: Polity, 1991.
- Carr, Helen. *Jean Rhys*. Plymouth: Northcote House, 1996.
- Gregg, Veronica. *Jean Rhys's Historical Imagination: Reading and Writing the Creole*. Chapel Hill: U of North Carolina P, 1995.
- Otto, Melanie. "'That Misty Zone Which Divides Life from Death': The Concept of the Zombi in Jean Rhys's Short Fiction." Wilson & Johnson. 151-68.
- Pinkerton, Steve. "Religion in Rhys." Wilson & Johnson. 87-110.
- Porter, Andrew, ed. *The Oxford History of The British Empire. vol. 3. The Nineteenth Century*. Oxford: Oxford UP, 1999.
- Porter, Dennis. *The Pursuit of Crime: Art and Ideology in Detective Fiction*. New Haven: Yale UP, 1981.
- Raiskin, Judith L. *Snow on the Cane Fields: Women's Writing and Creole Subjectivity*.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1996.
- Ramchand, Kenneth. "Introduction." *Jean Rhys: Tales of The Wide Caribbean*. London: Heinemann. 1985.
- Rhys, Jean. *Jean Rhys Letters, 1931-1966*. Ed. Francis Wyndham and Diana Melly. London: André Deutsch, 1984.
- \_\_\_\_\_. *Sleep It Off Lady*. London: André Deutsch Limited, 1976.
- \_\_\_\_\_. *Tigers Are Better-Looking*. London: André Deutsch, 1968.
- Savory, Elaine. *Jean Rhys*. Cambridge: Cambridge UP, 1998.
- Torgovnick, Marianna. *Gone Primitive: Savage Intellectuals, Modern Lives*. Chicago: U of Chicago P, 1990.



Wilson, Mary & Kerry L. Johnson, eds. *Rhys Matters: New Critical Perspective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3.

Abstract

## **The Inner World of British Colonists Revealed Through ‘Unplaceable’ Strangers in Jean Rhys’s “Pioneers, Oh Pioneers” and “Fishy Waters”**

Oh, Eunyo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Jean Rhys's many short stories, published in the 1960s and 1970s, are set in the turn of the century and the early 20th century when the British empire had spurred to educate the British people to embody its imperial ideology. Among them, “Pioneers, Oh Pioneers” and “Fishy Waters,” included in *Sleep If Off, Lady* (1976), capture the moment that British colonists living in Roseau of Dominica get isolated and deteriorated inside their soul. The moment is revealed through colonists's encounter with strangers such as Mr Ramage in “Pioneers, Oh Pioneers” and Jimmy Longa in “Fishy Waters.” Zygmunt Bauman explains in *Modernity and Ambivalence* that strangers are, in principle, unplaceable in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ther. Thus strangers are the ones that can question the very principle of the opposition of the subject and the other which should be clearly placed under the social norms of the European colonialists.

This paper examines how the British colonists presented in these two stories respond to these strangers. Rhys portrays the white colonial society through Rosalie's point of view, a little girl aged 9, to reveal its blindness while applying the detective narrative in “Fishy Waters” to expose its doubleness. The narrative of each story interestingly reveals the monstrosity of British colonists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hybrid and seemingly monstrous strangers. In doing so, Rhys criticizes the British

imperialism by disclosing the way in which the intolerance of anything different and unplaceable lead people to violence and blindness.

**Key Words:** Unplaceable strangers, the opposition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ther, the detective narrative, modernity, ambivalence  
위치지울 수 없는 이방인, 주체와 타자의 대립, 탐정소설 서사, 모더니티, 양가성

논문접수일: 2015.5.27

심사완료일: 2015.6.17

게재확정일: 2015.6.17

이름: 오은영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소: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대 영문과

이메일: young\_oh@naver.com

